

# 정읍시 동학혁명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농민군 기록물 등 185건 인증패·인증서 전달...김지수 서예가 사발통문 퍼포먼스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축하 기념식이 열린다.

정읍시는 오는 2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과 등재 인증패·인증서 전달을 위한 범국민 축하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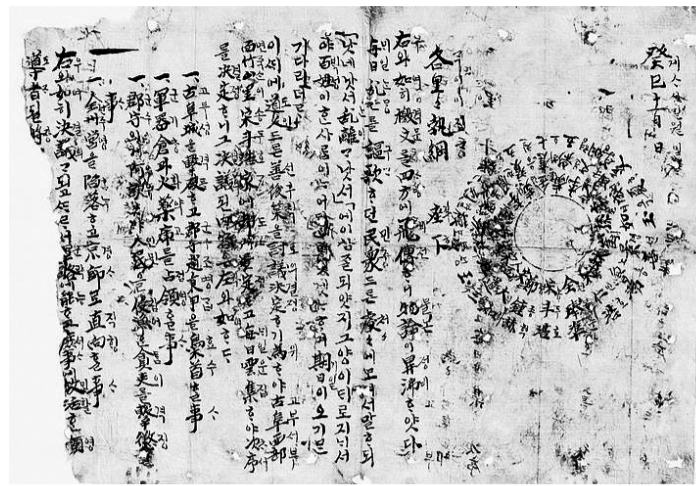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지난 5월 24일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서 전 인류가 공유하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됐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란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로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민간인이 남긴 문집과 일기, 동학농민혁명 전문 기록물, 조

선정부가 생산한 보고서와 공문서 등 전체 185건이다.

이 기록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천도교 중앙총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등 11곳의 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전복도와 정읍시가 인증패를 전달받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인증서를 전달받는다. 또 김지수 서예가의 사발통문 퍼포먼스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현대적 의미로 표현하는 문구를 쓰여지던 주요 내빈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사발통문'.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가운데 '사발통문'이 포함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농민봉기가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는 기념재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024년 기록물 특별전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홍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도시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해 동학농민혁명정신 세계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자신의 이름에 손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85건의 기록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150명에 장학금 3억원

### 정읍시민장학재단 대상 확대 23년간 총 34억여원 지급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이 재단 이사회를 통해 2023년 장학생 150명을 최종 선발 확정하고 총 3억1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발 인원을 지난해 대비 17% 확대해 150명을 최종 선발했다.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장학생은 4년대 117명, 전문대 33명이다. 이들에게는 4년대 220만원, 전문대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2000년 재단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2643명의 학생에게 총 33억6700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 정읍장학숙을 건립해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단 이사장인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급되는 장학금은 정읍시민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출향인들이 심시일반 모아 보내주시는 기탁금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기 바란다"며 "재단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사회적기업 40일만에 3480만원 매출 고창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자문단' 위촉



지리산 해발 500m에서 30년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남원 사회적기업 하이오백의 수제 김부각.

### 누룽지·김부각 등 온라인 판매 시, 클라우드 펀딩지원사업 결실

남원지역 사회적기업이 남원시의 '클라우드 펀딩지원사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정상궤도에 안착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클라우드 펀딩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관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5개소의 누룽지, 김부각, 우무채 밀키트, 천연 바다위시, 햅쌀 등을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판매 했다.

현재까지 40일 간 판매가 진행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판매가 종료된 상태다.

판매기간 기업별 판매개시일이 달라 성과 수준이 같지 않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판매금이 3480만원에 달했다.

참여 기업 중 지리산황지마을영농조합에서는 지리산 백사골 계곡에서 생산한 100% 유기농 쌀을 원료로 한 유기 가공 누룽지와 함께 조정을 판매했다. 또 유한회사 하이오백은 지리산 해발 500m 정정지역에서 30년 전통 방식의 노하루로 생산된 수제 김부각을 선보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는 '따뜻한 부각'이라는 사연으로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허브네이처에서는 천연성분 바다위시제품을, 지리산팍은물출향골에서는 우무채 밀키트 3종을 제공했다.

이 밖에 농업회사법인 비즈양조는 올 추석 시기에 맞춰 삼진강 자락 금지면에서 생산된 찰진 청정 남원 햅쌀을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수제 김부각을 선보였던 하이오백 허정진 대표는 "남원 김부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이 농업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농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고창군 농업정책자문단'은 농업 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농업 분야와 기타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종합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열린 위촉식(사진)에서는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의 활동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창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정책으로 ▲군비 보조사업 서류 감축 ▲농촌 외국인 인력정책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등 추진 중이거나 2024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을 다뤘으며, 사업의 개선점,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한 군의 노력과 개선방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등 현안과 농업정책에 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시체육회, 볼링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유치

남원시체육회가 볼링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했다.

남원시체육회에 따르면 남원시볼링협회와 대한볼링협회의 협조로 오는 30일까지 남원 스포츠클럽장에서 볼링 국가대표 선수단 20명이 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은 IBF 세계선수권에 대비한 전지훈련이자 최종 엔트리(총 12명, 남녀 각 6명) 선발전을 겸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대한볼링협회는 지난 4월에도 전국에서 25개 실업팀이 참가한 전국실업볼링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했다.

남원시체육회 관계자는 "남원 국가대표 감독이 남원에서 실업팀 대회와 선수단 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실업볼링대회도 남원에서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매운맛에 빠지다

### 26~27일 해풍고추축제 직거래 장터·체험·공연 등 풍성

고창군이 26~27일 고창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서 '제27회 고창해풍고추축제'를 개최한다.

고창해풍고추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껍다.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전국 최고의 고추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축제기간 고창군 관내 고추재배 농가와 단체가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직거래 장터에서는 견고추와 고춧가루를 10% 내외 할인 판매해 고품질 고추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했다.

또 고창해풍고추를 소재로 관광객 체험행사(고추모종 심기 등), 감쪽떡매, 다양한 공연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풍고추와 고창농특산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화합의 장이다"며 "지역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